

# 창업 성공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와 권리 의무관계, 세금과 책임 비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인 창업 후, 각자 기대월급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성공창업가가 세금부담을 줄이고, 분산하며, 미래로 이연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유일한 방법임.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속기업	개인의 은퇴나 사망으로 단절	경영자 은퇴해도 경영권 지분양도나, 가업승계로 영속됨
책임범위	사업 실패와 대외부채에 개인재산 무한 책임	법인에 불입된 자본금 범위내 유한책임
다수 참여	창업자 개인 중심 100% 투자(단업)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가능(동업)
자금조달	외부 조달자금도 창업자의 개인부채임	지분양도로 자금조달 가능, 개인 아닌 법인 명의의 외부차입금임
소득분산	매년도 이익, 소득이 창업자 개인에 집중됨	동업자, 경영진, 이사 등의 역할에 따른 소득분산
세금부담	다단계 초과누진세율(6%~42%로 7단계) 당기이익이 4600만원 초과부터 24%, 8800만원 초과 35%, 1.5억원 초과 38%, 3억 초과 40%, 5억원 초과시 42%가 최고세율(1.1배)임	다단계초과누진세율(10~25%의 4단계) 당기이익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 3천억원까지 22%, 3천억원 초과 25%

경영자보수	개인사업자 이익 = 최고경영자 보수임 (상기의 세금부담이 당년도에 직결됨)	최고경영자와 다수 경영진 급여(개인세 금부담계산)를 법인이익에서 비용 차감 후 남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계산
가업승계	창업자 사망시 폐업 후 신규사업자 등 록(실물재산가치평가)	창업자 보유지분의 승계(기업가치 평가 함)
성실신고	연간 매출액 15억원(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7.5억원(제조, 건설, 숙박, 운수 등), 5억원(부동산임대, 서 비스업 등) 이상이면 외부 회계사·세 무사의 회계감사급 성실확인 필수	성실신고확인제도 없음. 실제 거래내역 대로 대차평균에 따른 복식부기와 재무 제표 작성(사업통장거래내용과 일치하 는 회계처리와 장부기장)
실제 사례	개인 자영업, 음식숙박, 프랜차이즈 가 맹점 등, 3~5인 내외의 소규모 도·소 매, 서비스업 등	외부자금 조달, 다액의 차입금이 필요 한 중대규모 설비투자 사업, 개인창업 성공 정착 후 제2도약 단계의 유망사업